

부산 원도심 공동체 복원 위한 전략과 세심한 정책 도입 필요

강 성 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kangsc@bdi.re.kr



지금 부산에 어느 때보다 열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것이 날씨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산 시민의 뜨거운 기운이 한데 모인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바라는 부산 시민의 솟구치는 열기가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입지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신공항 유치 염원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 6월호 특집은 부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공동체 복원과 상권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전략과 세심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원도심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도시설계적 재생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가치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원도심의 공간성과 장소성에 묻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실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묶어 원도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방안도 눈길을 끄니다. 원도심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도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수반되면 더욱 효과적인 원도심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이슈는 동남권 주력산업인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향후 정책적 방안 등을 살펴봤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5월 18일 긴급 개최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부산의 대응전략’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관련 법령 개정의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소개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4월 28일 개최한 ‘지방분권 관련 법령 개정의 파급효과 분석’ 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공동연구로 추진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이 눈길을 끄니다.

BDI 정책광장은 한성안 영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경제학 광장’ 강연을 실었습니다. 강연자는 “경제학은 인간의 ‘좋은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케인스경제학과 진화적 제도경제학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적 접근방식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BDI 연구보고서도 관심을 끄니다. ‘부산지역 수질오염원 분포 및 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 ‘부산진시장 일원 패션·봉제 클러스터 육성 기초연구’, ‘부산지역 초정밀융합부품산업 미래기술 대응전략’,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구상’ ‘도시재생마을 브랜딩 전략방안-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등이 소개됩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매우 더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연구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